

서점가 휩쓰는 '영화소설' 이상열기

대중적 인기 업고 '원작없는 번역소설' 버젓이 나돌아

최근 2, 3년 사이 출판의 한 장르로 정착하면서 젊은층의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소설'들이 그 상업적 성공에 편승해 점차 기형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깊은 우려를 던진다. 갈수록 파급력을 높여가는 영상매체의 위력이 출판에도 여지없이 파고들어 요즘 시내 중심가의 서점에는 TV, 영화에 상영된 작품들의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

대개의 영화소설들은 영화의 개봉과 함께 출간되었다가 영화의 막이 내리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버리고 마는 일회성이기 일쑤인데 이 가운데는 영화가 상영되기에 앞서 출간, 신문광고 등을 통해 홍보용 전위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영화가 종영된 후에도 그 여운을 간직한 관객들에 의해 좀 더 생명을 연장하는 작품들도 있다.

이같은 영화소설 출판의 성행은 그 덕을 톡톡히 누리는 영화사측과, 출판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출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서로 엇갈려 왔었는데, 출판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작품이라면 영화의 인기에 편승했던, 상업성을 겨냥한 의도된 출판이건 아쉬운 대로 특별히 꼬투리를 잡을 일은 없을 테지만 최근 출판된 몇몇 영화소설들은 출판의 기본적 윤리조차 결여되어 있다. 즉 영화의 원작이었던 소설을 번역해 내었다가 시나리오 스틸을 묶은 것도 아닌데 마치 번역소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주로 외국 영화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최근 영화소설의 인기를 타고 예년 없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래에 개봉되어 흥행을 기록하거나 했던 영화 가운데 소설화되어서도 역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몇몇으로 「나홀로 집에」 「양들의 침묵」 「도둑왕자 로빈후드」 「사랑과 영혼」 「귀여운 여인」 「시네마 천국」 「인터걸」 「적과 함께 잠들다」 등이 있다. 이중에는 원작을 이윤기, 최승자 등 널리 알려져 있는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원작의 맛을 한껏 살려낸 번역소설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영화에서 제목만 빌어 왔다면 순전히 시나리오나 자막을 참고삼은 역사나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듯한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불량품들도 여럿 된다.

“영화가 원작에 못 미친다”는 등의 역자의 자신있는 비평까지 곁들여져 있는 경우들은 그것을 찾아 읽는 독자들 역시 영상미디어와 활자미디어가 어디에서 만나고, 또 어디에서 헤어지는지를 흥미있게 관찰해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독특한 재미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영화의 줄거리를 쫓아가기에 급급하거나 문장도 의미전달이 어려운 것이 많은 등 작품성은 고사하고라도 출판형식상의 허점이 여러곳 발견된다. 먼저 이들은 번역에 사용한 원작이나 최소한 시나리오를 각색의 자료로 삼았다는 등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작자엔 감독의 이름이 멩그라니 올려 있곤 한다. 아쉽게는 역사소개도 마찬가지로 전공분야도 경력도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저 잡지사에 오래 다녔다는 등 약력만 보아서는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지 소설을 쓰는 사람인지 애매하 기만 해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한 이 영화소설을 자신의 '작품'으로 명명,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또 어떤 책의 경우 “미영화계 올상반기 흥행 1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개봉되어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책으로 독자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작가의 말을 쓰고 있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급조한 소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의 화보나 주제가 약보를 수록, 청소년층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같은 영화소설의 작품화는 허구라는 제약 때문에 똑같이 대비시켜 보기에는 여러모로 적합지 못한 예이기는 하나 국내소설 「어느날, 모험의 전말」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과 흡사해 영화소설 출판에 얽힌 석연치 않은 내막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직업이 자유기고가인데 어느날 영화사로부터

소설 한편을 제안받는다. 그는 한달 안에 영문 시나리오와 영화를 보고 소설 한편을 급히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그것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책을 출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목적에서다. 신문에 영화광고를 하는 것보다 같은 크기의 책광고가 훨씬 광고비가 적게 든

다. 영화사측의 판단때문이다. 호구지책으로 그가 받아들인 것은 예상치 않았던 일본어 자막(미국영화니까 당연히 영문시나리오여야 할 텐데)과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그의 시사회때 영화를 한번 본 것이 소설을 쓰기 위해 얻은 자료의 전부였다. 주인공이 매우 당황하고 갈등을 겪었던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모든 영화소설이 이와 흡사한 과정을 거치리란 것은 아니지만 또 영 틀린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출판되어 한창 상영중인 영화의 제목을 달고 마치 원작을 번역해놓은 작품인 듯 그럴 듯하게 책으로 꾸며 진짜 원작소설들 사이에 놓이게 되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리는 데 미숙한 독자들은 책의 가치보다 오직 영화의 명성에 따라 손쉽게 선택해간다. 그것은 출판을 막는 길로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는 치졸한 상업출판 가운데서도 가장 저급한 형태여서 아쉬움과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혜옥 기자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과정 추적

보브 우드워드의 「사령관들」

‘전쟁을 먹고 커온 나라’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쟁’의 결정과정 및 군사정책을 백안관과 펜타곤의 주요인물들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밝혀보고 있는 정치·군사드라마.

‘위트케이트 사건’을 폭로하여 일약 세계적인 톱기자로 떠올랐던 보브 우드워드(현 워싱턴포스트紙 편집부국장)가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88년 11월8일부터 91년 1월 16일까지 800여일 동안 400여명의 주요인물들을 만나 취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놓고 있다.

이 책에는 제목이 시사하듯 미국의 수많은 고급지휘관들이 등장하는데, 합참의장 콜린 파월, 남부사령관 맥스웰 서먼, 전투사령관 칼 스티너 중동과전군사령관 슈워츠코프, 그

리고 부시대통령을 비롯해 베이커국무장관, 체니국방장관 등 백악관의 주요인사들이 주·조연으로 등장, 주요 정책결정을 둘러싼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복잡한 인간관계 등을 흥미롭게 엮어, 전쟁막후의 음모를 살펴볼게 한다.

부시의 등장후 최근 일어난 군사사건은 한결같이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선 주목을 끈다. 완벽한 노리개가 제거작전을 짜놓고 적당한 명분을 찾을 때를 노리는가 하면, 쿠데타기도를 맞아 아키노필리핀대통령의 목타는 원조요청에도 느긋하게 국익을 먼저 계산해보는 펜타곤과 백악관의 치밀함은 섬뜩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책의 곳곳에 ‘미국은 결코 패하지 않게 사전계획된 전쟁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은근한 자신감이 배어 있기도.

중앙출판사 / A5신 / 424면 / 5000원